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15권, 제1호, 2012년 6월 | ISSN 1229-263X
Korean Parent Child Health J Vol. 15 No. 1, 14-19, June, 2012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이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김지연[1] · 안민순[2] · 박현주[3]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1],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2], 선린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3]

Effectiveness of Infant Care Competence according to Pediatric Nursing Practice at School

Kim, Ji Youn[1] · An, Min Soon[2] · Park, Hyun Joo[3]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Changwon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Changwon
[3]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Sunlin College University, Pohang, Korea

Purpose: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neonatal assessment ability and neonatal car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practice at school.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91 nursing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89 control group.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ishers exact test, t-test, ANOVA. **Results:** The mean score of neonatal assessment ability was 39.01±2.19 in experimental group, 30.20±6.48 in control group. The mean score of neonatal care ability was 39.43±2.31 in experimental group, 33.67±5.17 in control group. **Conclusion:** From the studies reviewed, it can expect the positive effect to improving the infant car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field through pediatric nursing practice at school.

Key Words: Neonatal assessment ability, Neonatal care ability, Pediatric nursing practi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무를 근거로 한 실용학문이므로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제적인 실습교육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접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기초의학과정, 기본간호학 실습과정, 대상별 간호학 전공 교과목 이론과정, 임상실습 과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기초의학과정과 대상별 간호학 전공 교과목 이론과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간호문제를 이해하고 간호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간호학 실습을 통해 간호의 전반적인 술기를 터득해 나가고 있고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과정의 과학적 틀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간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숙련하고 있다.

간호의 대상은 인간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임상실습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동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병동, 신생아실에서도 실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대부분 기본간호학 실습만이 학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즉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등의 교과목은 학내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론교육을 하고 임상현장에서 실습지도 및 집담회를 통하여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학생들의 임상현장에서의 실습은 신규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실습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Lee & Kim, 2011; Cho & Kwon, 2007), 특히 신생아실은 저 출산으로 인

주요어: 신생아 사정 능력, 신생아 간호중재 능력, 아동간호학 실습

Corresponding author: Kim, Ji Youn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100 Yongdam-ri, Naeseo-up, Masanhoiwon-gu, Changwon 630-729, Korea.
Tel: +82-55-230-1176, E-mail: kjy581@masan.ac.kr

투고일: 2012년 4월 9일 /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0일

© 2012 The Academic Society Parent-Child Health

한 사례의 감소로 임상에서 학생들이 직접 신생아 간호술기를 배우는데 이전보다 어려움이 더 많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임상실습 교육방법으로 학생들의 간호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의 적응력 및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활용 실습 교육이나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실습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Kim, 2011; Kim & Choe, 2011; Lee, 2011; Lee & Kim, 2011), 정규 교육과정의 학내 실습교과목으로 개설하여 간호 술기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나아가 표준화 환자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 교육방법을 단계적으로 활용했을 때 학생들이 이론으로 배운 지식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고 낯선 임상환경에 접하는 학생들의 자신감도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생아 사정과 신생아 간호중재를 학내실습을 한 그룹과 학내실습을 하지 않은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의 효과를 확인하고, 학내실습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이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신생아 간호 및 가족에 대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이 신생아 사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이 신생아 간호중재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신생아간호 학내실습을 한 실험군이 학내실습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생아 사정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신생아간호 학내실습을 한 실험군이 학내실습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생아 간호중재 점수가 높을 것이다

4. 용어정의

1) 신생아간호 수행능력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은 신생아를 사정하고 간호중재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생에게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이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1개 대학 간호학과의 아동간호학을 수강하는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을 보장함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양측검증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는 .50으로 하였을 때 172명이 필요한 기준에 근거하였다. 연구시작 당시 탈락자를 고려하여 실험군 100명, 대조군 100명으로 모두 200명으로 대상자 선정은 간호수행능력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1학년 학기말 기본간호학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5%와 하위 15%를 제외한 후, 신생아간호 학내실습 수업을 마친 4개 분반의 학생 100명을 실험군, 신생아간호 학내실습 수업을 하기전인 4개 분반의 학생 100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최종 대상자는 200명의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응답한 20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험군 91명, 대조군 89명이었다.

3. 연구도구

14주의 아동간호학 이론수업을 마친 후 마지막 15주에 2시간에 걸쳐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을 하였다. 실습의 내용은 신생아실에서 행해지는 술기에 근거하여 신생아 사정(피부상태, 천문, 원시반사, 성숙도, 쇄골골절, 고관절탈구, 잠복고환 등)과 신생아간호중재(신체계측, 활력징후 측정, 분유조제, 수유, 트림시키기, 목욕, 외측광근에 근육주사, 눈간호, 제대간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습은 3인의 아동간호학 교수가 3개의 실습실에서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은 각각의 실습실을 순회하며 시범을 본 후 모형에 직접 실습해보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실험군은 이와 같은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을 마친 후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측정의 형태로 답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학내실습을 하기 전에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 측정의 형태로 답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신생아실에서 행해지는 술기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창원 지역 2개 종합병원의 아동병동 및 신생아실 수간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정 · 보완된 신생아간호 수행능력 측정도구 43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생아 사정에 대한 21문항과 신생아 간호중재에 대한 22문항으로 구성된 3점 likert 척도로서 최저 0점 최고 86점까지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잘함 2점, 부족함 1점, 못함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2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수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15주간의 아동간호학 2학년 1학기 수업 중 1주(2시간)의 아동간호학 학내실습 수업을 마친 4개 분반의 학생을 실험군으로 하여 실습수업 종료 후 설문지를 배부 및 수거하였으며, 아동간호학 학내실습 수업을 하기전인 4개 분반의 학생을 대조군으로 하여 실습수업 전에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중복 응답한 20부를 제외한 18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산출, 검정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Fishers exact test,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에 따른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일반적 특성별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실험군에서 남자 4.4%, 여자 95.6%였으며, 대조군은 남자 4.5%, 여자 95.5%였다. 종교를 살펴보면 실험군에서는 48.4%, 대조군은 55.1%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모두 취업가능성, 적성과 취미에 알맞음, 성적에 맞추어 순으로 많았다.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만족, 보통, 불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사에서 성별, 종교,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어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에 대한 가설검정

1) 가설 1

신생아간호 학내실습을 한 실험군이 학내실습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생아 사정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실험군이 39.01±2.19점, 대조군이 30.20±6.48점으로 유의한 차이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91) n (%)	Cont. (n=89) n (%)	Fishers exact	*p*
Gender	Male	4 (4.4)	4 (4.5)	0.001	.974
	Female	87 (95.6)	85 (95.5)		
Religion	Yes	44 (48.4)	49 (55.1)	0.810	.368
	No	47 (51.6)	40 (44.9)		
Motivation for application of nursing school	Employment	52 (57.1)	55 (61.8)	4.953	.292
	Aptitude	18 (19.8)	16 (18.0)		
	Recommendation	15 (16.5)	9 (10.1)		
	Others	3 (3.3)	8 (9.0)		
	High school record	3 (3.3)	1 (1.1)		
Level of satisfaction studying nursing	Satisfied	52 (57.1)	42 (46.6)	3.765	.439
	Normal	31 (34.1)	36 (40.9)		
	Unsatisfied	8 (8.8)	11 (12.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가 있어 가설이 지지되었다(t=12.274, p<.001).

2) 가설 2

신생아간호 학내실습을 한 실험군이 학내실습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생아 간호중재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실험군이 39.43±2.31점, 대조군이 33.67±5.1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이 지지되었다(t=9.671, p<.001).(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간호 수행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은 신생아 사정과 신생아 간호중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3).

논 의

신생아간호 교육의 목적은 신생아의 신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간호계획과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간호교육에서 실습은 비판적 사고를 통한 대상자 사정, 문제해결, 간호중재 등의 실제적 학습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써 실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을 한 그룹과 학내실습을 하지 않은 그룹간의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학내실습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실습방법은 이론수업에서 배운 전반적인 신생아 사정과 신생아 간호중재에 대해 담당 교수가 시범을 보이고 난 후 학생들이 모형에 직접 실습을 하였다. 신생아간호 수행능력 중 신생아 사정은 실험군이 39.01±2.19, 대조군이 30.20±6.48로 학내실습을 받은 실험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신생아 간호중재도 실험군이 39.43±2.31, 대조군이 33.67±5.17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내실습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임을 의미한다. 신생아 사정 점수와 신생아 간호중재 점수 간에는 신생아 간호중재 영역의 점수가 더욱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정영역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정술기를 적용하여 정상과 비정상 소견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간호중재 술기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신생아 간호중재에는 활력징후 측정,

Table 2. Effectiveness of Neonatal Care Competence (N=180)

Categories	Exp. (n=91) M±SD	Cont. (n=89) M±SD	t	p
Ability of neonatal assessment	39.01±2.19	30.20±6.48	12.274	<.001
Ability of neonatal care	39.43±2.31	33.67±5.17	9.671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Effectiveness of Neonatal Care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ANA M±SD	F	p	ANC M±SD	F	p
Gender	Male	36.62±3.74	1.785	.183	37.50±6.16	0.000	.996
	Female	34.56±6.62			36.54±4.87		
Religion	Yes	34.27±6.83	0.191	.663	36.89±4.59	0.558	.456
	No	35.07±6.19			36.25±5.24		
Motivation for application of nursing school	Employment	34.41±7.13	0.716	.582	36.43±5.39	0.659	.621
	Aptitude	34.76±5.96			37.47±3.55		
	Highschool record	38.50±3.42			38.50±2.52		
	Recommendation	35.71±4.75			35.67±5.02		
	Others	33.00±6.15			36.63±4.15		
Level of satisfaction studying nursing	Satisfied	35.34±5.92	1.015	.364	37.01±4.65	1.369	.257
	Normal	34.13±7.26			35.80±5.53		
	Unsatisfied	33.52±6.52			37.26±3.72		

ANA= ability of neonatal assessment; ANC=ability of neonatal care.

투약, 억제대, 이동, 검사물 수집, 목욕 등 대부분의 항목이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배웠던 술기를 재구성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반복학습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된다. 선행연구(Kwon, 2000; Park, Tak, & Kang, 2006)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동간호학 실습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소수의 대학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원, 보건소 및 가정, 장애아동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상호교류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현장감 있는 접근과 대상자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심도 있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은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는 어려움, 역할의 모호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역할 수행, 과중한 업무, 무력감, 능력부족, 불확실성, 통제력 부족, 지도교수와 동료들과의 관계형성에서 당면하는 괴로움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Kim & Lee, 2005; Park, 2008; Whang, 2006; Xabier et al., 2007)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감소시켜 임상실습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직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간호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낯선 임상현장에 나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역할의 모호성, 경험이 없음과 관련된 자신감 저하, 사례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실습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신생아의 신체 사정과 간호중재에 대한 전반적인 간호술기로 구성된 학내실습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을 하는 학교가 거의 없고 또한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의 효과를 파악한 선행연구도 없어서 연구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15주 과정 중 두 시간만 실습을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습시간을 보다 많이 배정하고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학내실습 전 · 후 비교 및 임상실습 전 · 후 비교를 통하여 학내실습의 효과가 임상수행능력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임상실습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간호수행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성인간호학 실습지원 웹 콘텐츠의 학습효과(Kim, Bae, Kim, & Yang, 2010)에서는 임상실습 전이나 도중에 웹 콘텐츠 학습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간호지식 증가에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 임상수행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learning을 이용한 교육과 강의실 교육을 혼합한 방식인 blended learning을 이용한 오리엔테이션 교육(Lee, 2008)에서는 임상실습 적응과 임상 수행능력의 향상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와 이들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비록 연구방법과 측정도구들 간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지만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on-line 방식으로만 구성된 교육보다 교수와의 면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간호술기에 대한 직접적인 반복학습이 제공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위의 선행연구에서 측정한 간호수행능력은 모두 학생들의 자가 평가로 이루어져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간호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간호수행능력에는 모든 항목에서 신생아 사정과 신생아 간호중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간호 실습 수행능력 및 실습만족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Jang, Han, Lee와 Han (200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나 전공만족도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Lee, Ha, & Kil, 2000)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신생아 간호사정 및 수행에 대한 학내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신생아 간호수행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론적 지식과 실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학습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전임교수의 역할이 실습강사나 현장지도자에 비해 오리엔테이션, 간호과정 적용지도, 집담회, 사례연구지도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아동간호학 실습방법에 비해 본 연구는 전임교수가 실습내용을 설명하고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근거중심의 실무교육을 적용한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아동간호학 교육과 실습관리를 위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학내실습과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이론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에 따른 간호학생의 신생아 간호 수행능력의 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학내실습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학년 1학기 15주의 아동간호학을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아동간호학과 관련된 2주간의 신생아 간호 학내실습을 마친 학생이 실험군이며, 대조군은 2주간의 학내실습을 하기 전인 학생들이다. 연구에 이용된 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하고, 아동병동 및 신생아실 수간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수정·보완한 신생아간호 수행능력 측정도구 43문항을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의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을 한 학생들의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신생아 사정 능력(t=12.274, $p<.001$), 신생아 간호중재 능력(t=9.671,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반복연구와, 아동간호학 학내실습을 한 후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과 학내실습을 하지 않고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의 신생아간호 수행능력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Cho, M. H., & Kwon, I. S. (2007).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3*(2), 143-154.

Jang, I. S., Han, S. H., Lee, M. J., & Han, M.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health practic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school health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6*(2), 423-435.

Kim, H. R. (2011). The relationship among learning satisfaction, learning attitude, self-efficacy and the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fter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emergency nursing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7*(1), 5-13.

Kim, H. R., & Choe, E. J. (2011). Development of a scenario & evaluation for simbaby simulation learning of care for children with fever in emergency units. *Jour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6), 279-288.

Kim, S. L., & Lee, J. 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1*(1), 98-106.

Kim, Y. O,, Bae, Y. S., Kim, S. M., & Yang, J. J. (2010). The effects of web contents learning for adult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6*(1), 5-13.

Kwon, I. S. (2000). An analysis on clinical education of pediatric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8*(3), 344-356.

Lee, K. E., Ha, N. S., & Kil, S. Y.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disclosure and clinical compi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3), 571-583.

Lee, S. E. (2011). Evaluation of the standardized patients(sp) managed instruction for a clinical maternity nursing co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7*(1), 14-24.

Lee, W. S., & Kim, M. O. (2011). Effects and adequacy of high-fidelity simulation-based training for obstetrical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1*(4), 433-443.

Park, B. S. (2008). *Stress and satisfaction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by sex role identity amo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Kangwon.

Park, E. S., Tak, Y. R., Kang, K. A. (2006). Evaluation of clinical practicum for child health nursing for baccalaureate student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2*(1), 5-14.

Whang,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Xabier, Z. G., Xabier, H. E., Mari, J. U. I., Inma, E. G., Maite, B. L., & Xabier, S. C. (2007). Stress source in nursing practice evaluation during nursing training. *Nurse Evaluation Today, 27*(7), 777-787.

Yi, Y. J. (2008). Effects of blended learning orientation program for clinical practicum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4*(1), 30-37.